

시민 모두 즐기는 미술문화축제 자리매김

국제미술전람회 아트광주23 폐막
24억여 원 판매...3만4천명 방문
“브랜드 정체성·방향성 토대 마련”

제14회 광주 국제미술전람회(아트 광주 23)에서 총 24억 7,000만 원 상당이 판매되며 경기 침체와 미술시장 부진 속에서도 지난해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트페어를 처음 찾는 시민들의 작품 구입도 크게 증가했으며, 아트페어가 광주 시민 모두 함께 즐기는 미술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했다는 분석이다.

25일 아트광주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21~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광주 국제미술전람회(아트광주23)에 3만 4,048명이 방문했다. 이는 2017년 이후 최대 관람객이다. 국내·외 105개 갤러리와 13개 특별전으로 구성된 올해 아트광주 23의 출품작 규모는 4,420여

점이다. 작품 판매액은 지난해 아트광주 22 판매 추정액인 22억 3,000만 원 보다 2억 4,000만 원 상승한 24억 7,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번 아트광주23은 김대중컨벤션센터 1·2·3관 모두를 활용한 넓은 공간면적을 바탕으로 갤러리 중심의 사업을 추진했다. 지역 및 국내·외 갤러리부스 105개를 유치했다. 이 중 지역 갤러리 44곳이 참여해 광주·전남 미술시장의 활성화에 이끔어냈다.

특별전 13개 부스 구성을 통해 아트페어의 외연을 확장했고, 명품컬렉션전은 개인 소장품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내 시민들에게 품격있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 컬렉터들에게 작품 구매를 촉진하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는 평가다. 또한 4개 지역(서울, 대구, 부산, 전주) 아트페어 교류전으로 지역 미술인이 타지역 미술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트광주가 성장형 미술시장으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외에도 VIP라운지, 카페라운지, 아트샵, 공예체험부스, 강연&프레스 부스 등 서비스 부스를 설치해 아트페어의 품격과 관람객 편의성 모두를 고려한 점도 돋보였다.

마지막 날인 24일 작품을 완판한 갤러리들도 눈에 띄었다. 출구 설문조사 결과 아트광주에 처음 방문했다는 관람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아트광주가 비단 미술계만의 행사가 아닌 시민들이 즐기는 미술문화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호평이 주를 이뤘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갤러리 중심의 운영방식 변화, 교류와 협력에 중점을 둔 특별전, 해외갤러리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홍보와 편의성 제고를 통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 증가로 아트광주23의 성공적인 폐막과 동시에 지역 아트페어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생겼음을 확인시켜 줬다”며 “향후 아트광주라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김진남 'Beyond 6'

‘물’ 모티브 독창적 인물화 선봬다

내일까지 김진남 개인전

전남대치과병원갤러리

김진남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27일까지 전남대학교치과병원아트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인간과 물을 주요 모티브로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인물화를 선보인다.

작가의 작업은 매력적인 달빛이 물속에 비치며 일어나는 물결의 움직임, 차창의 빗물에 비친 네온빛과 왜곡된 모습, 어두운 밤 바다를 바

라보며 느껴지는 신비로움 등 물의 다양한 면모를 통해 표현된다.

작가는 자연 속에서 물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각에서 영감을 얻으며 작업을 진행한다. 작품은 인간의 심리와 감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며, 신체와 마음 사이의 연결을 표현한다.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관계를 작품을 통해 표현해내고 있다.

김 작가는 홍익대와 동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뒤, 30여년 간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광주로 이주하며 자신만의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이나라 기자



지난 21~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트광주23에 3만 4,048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큐멘터리 도시 사진 기획전 ‘그림자 도시’

박래현·신경훈·백호현·채민영

내달 7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광주대 출신 사진작가 4명이 협업한 다큐멘터리 도시 사진 기획전 ‘그림자 도시:도시의 이면, 낙후의 얼굴’이 개막했다.

오는 10월 7일까지 광주대 극기관 1층 호심미술관에서 열리는 기획전은 광주대 졸업생 박래현, 신경훈, 백호현, 채민영 등 4명의 작가가

참여해 총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최준호 호심미술관장은 “작가들은 과거와 현재의 양면성을 지닌 고향을 교차해서 바라보거나 환경과 기후 차원의 미래지향적 고민을 하면서, 도시 발전 속 낙후된 모습에서 모순적인 면을 찾는 작업을 통해 각자 내면의 생각을 담아낸다”며 “젊은 작가들의 다음 작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김혁정 초대전 ‘안부_운주사로부터’

내달 3일까지 드영미술관

김혁정 초대전 ‘안부_운주사로부터’ 전이 오는 10월 3일까지 드영미술관 1 전시실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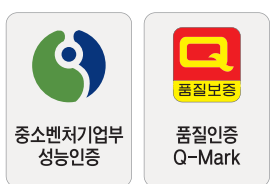
풍부한 감성을 타고 난 김 작가는 10대에 처음 운주사를 알게된 이후부터 틈나는 대로 운주사를 찾아 곳곳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운주사 풍경을 담은 회화 20여점을 선보인다.

드영미술관 김도영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김혁정 작가의 외유(外遊)와 형형색색 곁다른 행보 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월을 삭힌 귀한 운주사 작품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나라 기자



김혁정 '대화'

김혁정 작가는 고흥 출생으로 전남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파리 소르본 제1대학 조형미술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독일 만하임 초대전과 파리 르 살롱전 및 살롱도 퐁느전 등 다수 단체전과 초대전에 작품을 출품했다. /이나라 기자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 합천 황매산 전망대 ■ 목포 노을공원 공연장 ■ 부여사비창지구 ■ 인제 갯골전 정비사업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에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 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